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설문조사결과 간담회 개최

▶일시:
2000년 5월 15일
오후 4시 ~ 6시 20분

▶장소:
에너지관리공단 4층 회의실

▶주관: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처 ESCO팀

▶참석자:
이상순 건물수송에너지처장
류기준 ESCO팀장
이원갑 자금운영처장 및 담당
삼성애버랜드(고진규 차장)
EPS KOREA(유현자 부장)
한국히니웰(김석철 팀장)
BTE(소재옥 본부장)
화인테크(이철민 과장)
화성전기(이영학 전무)
동남아전설(장미란)
세광에너지(목진익 이사)
LG산전(유승우 대리)
하니기연(한연교 이사)
테크윈(양대식 팀장)
ESCO협회(남정현 국장)

회의주요내용

류기준 ESCO 팀장: 먼저 ESCO자금 추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올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신청이 활발한 편입니다. ESCO자금이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O 사후관리 결과 작년 말 기준,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등록 요건의 유지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기준 미달 및 사업의사가 없는 4개 업체(태일정밀, 금호산업, 신광기업 및 모사코)가 등록증을 반납, 취소하였으며 미달 부문이 있는 업체는 이를 보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금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SCO사업 현장의 사후관리는 주로 조명사업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로써 절약 기기(램프 및 안정기 등)가 사업추천 당시의 공단 인증 제품인지의 여부와 제품수준에 대한 검사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업체는 정품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계측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경우, 임대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SCO 간담회는 특별한 ISSUE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매분기 당 한 번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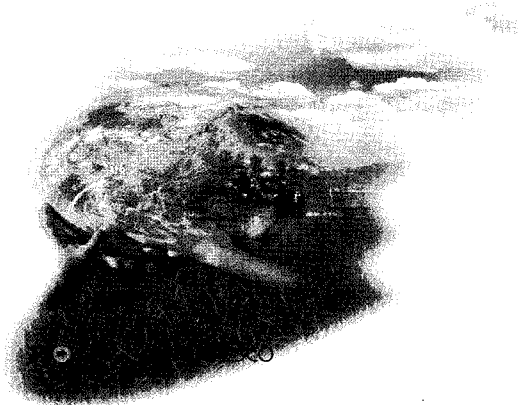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문 및 일부 여론을 들어볼 때,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에 대해 일부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자세히 보면 종전의 기준보다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힘썼으나 오히려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자기 회사뿐만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의 경우, 건설교통부 등과는 달리 공공기관 외의 민간부문에서부터 실적을 쌓은 후에 공공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SCO의 진단사업 참여

김하연 DSM사업처장: 수요관리부문중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예정인 자발적협약(VA)업체 및 대형 건물에 대한 전기부문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진단, 그 결과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ESCO에 공개하여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ESCO에서 협조해주셔야 할 분야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진단(투자)대상에 추가할 아이템의 추천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진단인력만으로는 기한 내 진단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진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ESCO는 참여 신청을 바랍니다. 단체 참가업체는 현재까지 한전기술 한 업체로 단체참가 시 기준은 10명이상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팀단위(전기 2명, 기계 1명 및 공정전문가 1명 등 4명 정도)의 운영도 가능할 것인데 공단의 인력POOL에 개인 단위로 등록, 공단 요원과 공동진단 용역 수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기연의 단체 참가 기준 완화요청에 따라 10명 기준을 4명 정도의 팀단위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제시)

진단 인력에 대하여는 6월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서 이번엔 공단에서는 인턴사원(전기 전공자)을 채용할 예정이므로 ESCO업체에서는 진단 경험이 없더라도 희망자가 있는 경우, 무료 교육을 실시하여 일정 기간 진단요원으로 채용,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ESCO로서는 경험도 쌓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전기부문 외에도 하절기 가스의 수요 발목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좋은 투자 대상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현황에 대하여

이원갑 자금운용처장: 현재의 추천 실적으로는 작년 수준에 미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추천 신청이 작년에 비하여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금 추천 시 인증제품 외의 기기 사용 등 용도 외의 자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연체금리부 상환조치가 있게 되며 향후 자금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기의 대체 사용 등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단의 변경 허가를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 보일러 개체 사업 시, 자금의 지원 취지는 노후 보일러의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추가 구입에 해당, 증설로서 불법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자금지원 대상설비의 확대요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지침상 명기되지 않은 설비 중, 지원이 가능한 것은 기타설비(공정개선, 건물개보수 등)인데 대상설비임에도 기준에 미달하거나 단순공정인 경우 지원이 불

가능합니다. ESCO의 진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조명설비개체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장이 인정하는 기타의 설비로서 인정하여 세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첫 번째 사례로 동양화재(98백만원으로 약 5백만원 감면 혜택)가 있습니다. 조명사업도 억원 단위의 큰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억원 이상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그 이하는 서류 확인도 가능).

EPS KOREA 유현자 부장: 동일투자지당 50억원의 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처장: 한도 폐지의 경우, 작년 말부터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 50억원 이상이 별로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금리는 ESCO자금과 VA자금만이라도 0.5~1%정도 인하를 건의하였으나 금융정책당국에서는 전체 금리문제와 결부시켜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크원 양대식 팀장: LG화학의 공정개선에 참여하고 있는데 담보제공이 곤란하여 5.5% 대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처장: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신용대출과 팩토링 제도가 있기는 하나 주로 제2금융권에서 실시중이고 제1금융권은 활발치 못한 편입니다. 은행권의 관행상 불가하다고 하니 업계에서는 의견을 종합하여 금융 당국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BTI 소재옥 본부장: 은행에서는 ESCO자금이 장기자금이어서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아예 팩토링을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처장: 일부 금융기관(농협 등)은 공단과도 대역 약정조차 맺지 않으려고 하는 등 은행문제는 비단 ESCO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하니웰 김석철 팀장: ESCO가 잘 되려면 VA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모두 웃음). 팩토링 취급기관이 확대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각 은행에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내용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의 활용이 원활치 못할 경우, 기존의 산은캐피탈과 연합캐피탈보다 규모가 훨씬 큰 제2금융회사가 많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팩토링을 취급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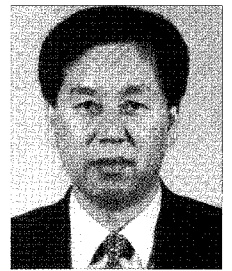
류기준 ESCO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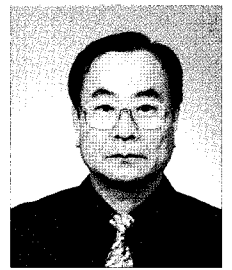
EPS KOREA 유현자 부장



한국하니웰 김석철 팀장



BTI 소재옥 본부장



화성전기 이영학 전무

이처장: ESCO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VA가 잘 되면 에너지절약이 효과적이게 되며 대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면 직접적인 에너지절약사업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0개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절약이 제대로 된다면 그 실적은 67개의 ESCO가 거두는 실적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대출기관의 경우, 제2금융권을 가급적 배제하였으나 산은캐피탈과 연합캐피탈은 일종의 국영회사로서 참여시킨 것이며 제2금융권으로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공단 자체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정부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1금융권의 팩토링 실시의 강요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단과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니기연 한연교 이사: VA대상업체의 경우 ESCO가 사업을 수행하면 담보의 부담이 없게 되는데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공단이 팩토링을 대신할 수는 없는지, 우선 공공기관 사업이라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처장: 공단이 팩토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공단의 직접 대출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ESCO와 VA업체중 일부 우량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지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융은 꼭 사고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공단은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므로 대손충당금의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매출 채권 매입(팩토링)시 5.5%의 이자로 기간 이익의 향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작년에 많은 부분을 팩토링으로 취급하였으나 제1금융권에서는 별 메

리트룰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버랜드 고진규 차장: 지원지침 공고가 늦어지거나 추천이 늦어져 자금인출 전에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반이 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경우 지침상 30%의 한도가 불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장: 30%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계약 체결시 대금의 지급 시기를 자금인출 후로 하거나 금융기관의 직접 지급, 또는 어음의 선지급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 간혹 자금 인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 자금을 회수하여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에버랜드 고진규 차장: 일부 공공기관 중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도 있는데요.

이처장: 원칙적으로 보일러실 건축비와 같은 부대시설은 절약시설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정적인 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에버랜드 고진규 차장: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자금의 지원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처장: 원칙적으로 절약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1청사의 경우와 같이 전입의 조정 없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여 변압공사에 대한 일부지원과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의 경우 작년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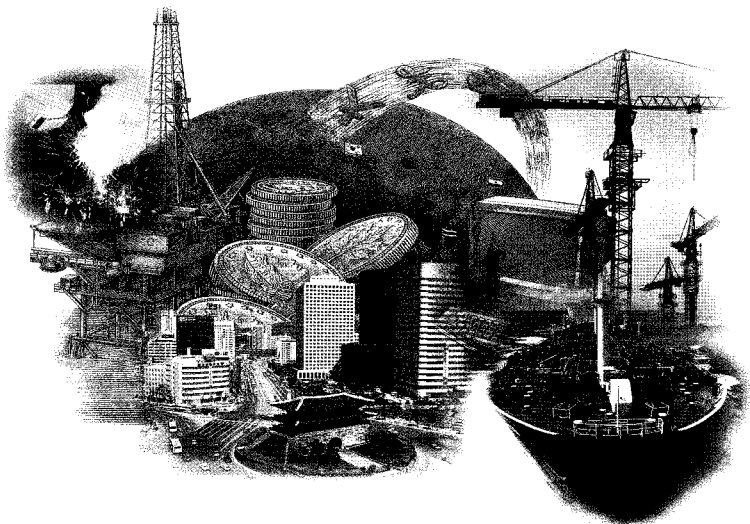
한국하니웰 김석철 팀장: 고객들이 ESCO에게 무조건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내용은 ESCO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적극 전파되고 홍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금운용처장 퇴실)

이상순 처장: 지원외의 부분은 ESCO가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한국하니웰 김석철 팀장: 실제로 자기 돈을 갖고 ESCO 사업을 하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삼성에버랜드 고진규 차장: 12.3%의 고금리로 사업을



해서 5.5%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광에너지 목진익 이사: 사업성을 따져볼 때, 약간의 수익은 있지만 큰 메리트는 없으며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신용 등급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류기준 팀장: 자금운용처에서 자금을 조금 검색되게 운용하는데 이는 올해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많은 업체들에게 골고루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직접 대출 문제는 시행시 오히려 은행권보다 경험이 적기 때문에 더 엄격해져서 ESCO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은행과 거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팩토링에 대한 근본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은 외국의 금융 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EPS KOREA 유현자 부장: 부대시설에 대한 일정 비율의 지원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류기준 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표준계약서상의 독소 조항이 있는지요?

다만, 계약서가 올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분명히 계약서는 올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PS KOREA 유현자 부장: 적격심사기준상 발주자에게 20%의 배점 융통성이 있으나 계약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여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류기준 팀장: 사업의 기여도 등 항목을 만들어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PS KOREA 유현자 부장: 진단비를 낙찰자로 하여금 주게 할 수는 없을가요?

이상순 처장: 구체적인 비용까지 공단에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하니웰 김석철 팀장: 진단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진단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실 사례는 없습니다.

류기준 팀장: 진단비는 지급이 가능하므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집행(분할 지급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하니웰 김석철 팀장: 한 공공기관의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하여 진단하고도 ESCO의 실력을 떠보기 위하여 재진단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SCO팀 김찬호 과장: 계약법상 진단비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는 데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이 문제로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격심사기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불리하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낙찰률이 약 10%이상 올라가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공기관 회계담당자들의 사고 방식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류기준 팀장: 이쯤에서 토론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ESCO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순 처장: 고효율기기의 정품 사용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ESCO등록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하반기에 다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기술 인력에 대하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SCO협회에서도 각 업체에 올바른 안내를 요망하며 에너지진단전문기 양성과정 개설이 계획대로 꼭 실시되도록 바랍니다.

각 업체는 ESCO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남장현 사무국장)

*이 글은 편집상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하니연 연연교 이사



ESCO협회 남장현 국장